

언젠간 꼭 가보리라
한가닥 희망으로 마음 졸여 견딘 세월
구순 넘으신 아버지의 기억 속
여전히 마모될 줄 모른 채 멍으로 음각되어 있는
또렷한 주소 하나

철원군 마장면 장포리

다 쓰러져가던 초가집,
밭두렁 길의 소심한 잡초까지 생생한 그 곳에
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여태 서성인다

그 시절 옆 동네로 시집갔던 손위 큰 누님
이제 백 살 넘어 생사조차 알 길 없는 혈육에 대한
그리움으로 가을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아버지의 가슴

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까..
날마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말

시간의 찻침 앞 기약없이 분주해지는 조바심의 뒤편길에
바다 건너 대륙도 섬나라도 구석구석 다 밟아보는 세상에서
고향 땅은 그저 하늘만 바라봐야하는 현실이
애달기만 한 아버지의 한 숨,
내뱉는 그 숨소리 역장의 무게보다 무겁다

고향의 흙이라도 만져보고 싶은
아버지의 소박한 염원,
그 작은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
흐르는 강물에 저 하늘 떠가는 구름 위에
퍼렇게 멍든 주소 띄워 보내면
장포리 풀숲에 살포시 안부 전해주려나